

## 드라마 '궁'의 공간구성을 통해서 본 전통적 이미지의 고찰

정지섭 / <주>비주얼스토리 공장 미술감독



우선 드라마 '궁'의 시각적인 완성도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학회에 학술적인테마로 선정됨을 감사드립니다.

드라마 '궁'은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황실이 복권되고 명예 입헌군주제 아래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현재까지 실존한다는 가상선상에서 출발하지만 나름대로의 설득력 있는 시대 별 황실 연호를 제시하며 시청자들을 가상의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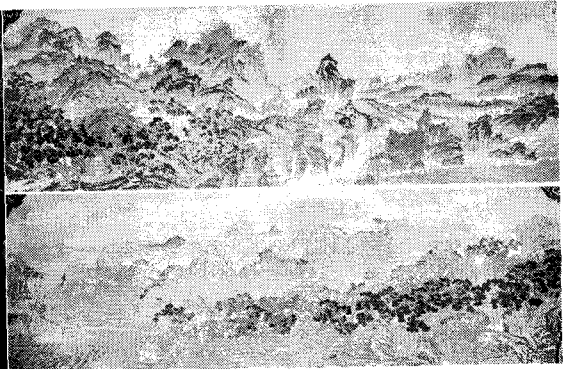
'궁'의 공간 디자인의 출발은 정전인 경복궁이나 동궁을 포함한 다른 전각들 속에서 황실의 주거 및 생활양식이 해방 이후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을까 라는 궁금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비록 허구의 공간, 판타지가 강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상상선속에 숨겨져 있는 리얼리티를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설득력 있는 공간으로 시청자들 앞에 다가설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역사적 자료를 반추하며 과거의 이미지들을 분석하고 재조합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재해석된 황실공간은 크게 구분하면 정궁의 전통적인 건축적 구조가 드러나는 황실 접견실<사진1>, 황제전<사진2>, 황태후전<사진3>과 바로크(baroque)풍의 이국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는 별궁인 운현궁 양관의 석조전 속에 황태자<사진4>와 황태자비의 공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에 열거한 각 공간들은 드라마의 흐름상 시각적인 매타포를 강하게 전달해야하는 주요한 공간들로 ratio section(3:4화면비율)이 아닌 16:9 화면비에서 파노라마 형식으로 좀더 포괄적이고 정교한 이미지들을 제공하게 됨으로서 정적인 황실공간이 독특한 미장센으로 다가설 수 있는 기술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진 1> 황실 접견실



<사진 1-1> 창덕궁 경훈각-조일선관도, 삼선관파도



<사진 1-2> 창덕궁 대조전-김은호의 백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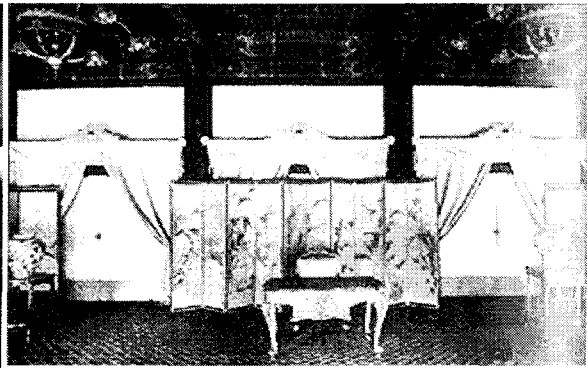
<사진 1-3> 창덕궁 대조전 회정당

개개의 특징적인 공간들은 문화적 차이를 지닌 다양한 소품들이 혼용되었으나 한국적인 정서를 대변해주는, 그 안에서 균형있게 호흡하는 잊혀졌던 대한민국 황실의 전형을 새롭게 유추하고 제시하는 과정으로 스튜디오에 재현된 접견실<사진1>과 황제전 집무실<사진2>, 황태후 침실<사진3>의 경우 큰 이미지의 전형을 창덕궁 대조전과 경훈각에 보존되고 있는 대한제국 시절의 황실생활의 마지막 잔상들을 시각적으로 열거하기 시작했고, 범아시아를 대표하는 복권된 21세기의 대한민국 황실문화는 입헌군주국들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와 왕성하게 교류하며 다양한 문화적인 기호를 가지고 있는 컨템퍼러리와 호흡해왔다는 가정 아래 전통적인 황실의 모습이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적인 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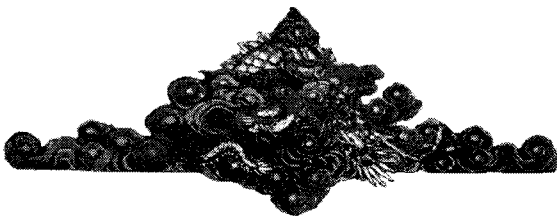
지코드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현재와 호흡하며 지극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존재해왔음을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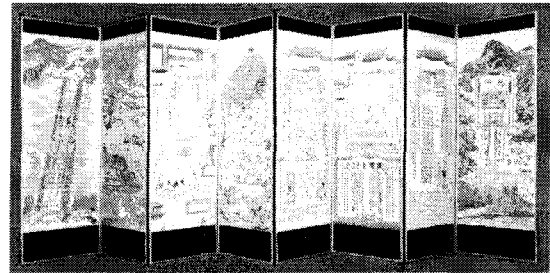
<사진 2> 황제전 집무실



<사진 2-1> 덕수궁 함녕전 내부



<사진 2-2> 창덕궁 인정전 용문 장식



<사진 2-3> 정조의 수원능행도

역사 속에 묻혀있던 시각 자료를 근간으로 한 과거의 장식성 있는 아이콘들은 나열과 조합 속에 약간의 증폭을 거듭하면서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지향하고 있는 공간문화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목할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부합하는 내용있는 드라마틱한 공간의 생동감을 더해줄 수 있는 현존하는 제작물들을 리서치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또는 영화미술 제작상의 많은 어려움중의 하나로 특화된 공간에 적용하고자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부분적으로 자체 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현존하는 제품을 생산 또는 개발중인 업체로부터 도움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며 드라마 '궁'의 경우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제품사들로부터 장기간의 협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방송환경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사전제작 시스템 속에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프러덕션 디자인의 장점과 완성도 있는 과정들을 제품사들과 오랫동안 공유하면서 이루어낸 또다른 성과로도 보여집니다.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개량화된 한국적인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좋은 제품군들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다행히 본 드라마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한국적인 코드들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의 성격을 크게 지배하는 각각의 면(面)들은 드라마 속의 특징적인 캐릭터들의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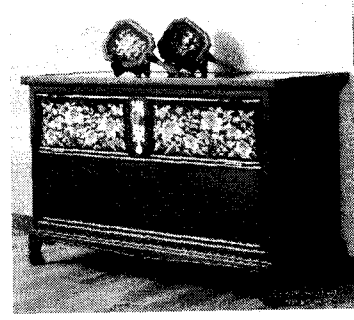
분석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때로는 자극적인 패턴과 색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도배지 (wall-paper)와 프린트된 그림들, 구조와 건축양식을 말해줄 수 있는 목재의 질감과 창호의 형태 등으로 극중 인물성격과 부합할 수 있는 요소들로 시각화 했습니다.



<사진 3> 황태후전



<사진 3-1>



<사진 3-2> 화조도, 모란도

<사진 3-3>

각 공간별 시각화 작업의 특성을 열기하면 황실 접견실<사진1>의 경우 단순한 응접실이 아닌 황실을 대표하는 대외적인 접객공간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우를 수 있는 자체 제작된 벽화<사진1-1,2,3>형식의 장폭의 그림 아래 대내외적으로 수집된 소중한 유물들이 함께 숨쉬는 소규모 박물관의 느낌을 살리고자 했으며, 접견실을 중심으로 사면이 회랑과 전통적인 포켓구조의 분리된 공간이 형식미에 있어서 약식화된 형태의 투명한 유리문을 통해 단절감 없이 공간을 연장함으로써 제한적일 수 있는 공간이미지를 확대하고 카메라 기법상의 다양한 화면구도와 약간의 공간변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매우 색다르고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공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황제 집무실<사진2>은 전통적인 건축양식의 틀 속에 황제의 침실과 연장선상에 있는 공간구성으로 주된 칼라의 방향성을 주색은 금색, 보조색은 검정으로 설정하고, 과거 고전적인 편전의 일월오악도를 배경으로 하는 용상위의 황제상에서 벗어난 개화기의 양식화된 창덕궁 인정전<사진2-2>의 이미지를 차용한 닫집형태의 커튼장식<사진2-1>이 공간 이미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집무실과 연계되어있는 침실공간은 병풍형식의 수원능행도를 경계로 집무실과 분리 또는 확장될 수 있는 공간구조를 가지며, 동양적인 요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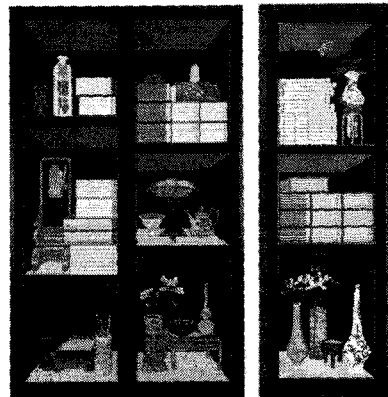
과 바로크, 아르누보 스타일등 개개의 특징적인 형태들이 공간을 형성하는 주색(主色)과 자연스럽게 병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자 노력한 공간입니다.

황태후전<사진3>의 경우 가장 한국적인 코드들이 많이 내재되어있는 공간인 동시에 공간디자인의 일관된 방향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으로 황실에서 사용되었던 궁중모란도<사진3-2>와 조선시대 민화풍의 화조도, 초충도등의 이미지들과 궁중유물전시에서 발췌한 시각자료를 주요 모티브로 설정하고, 입식 주거형태에 맞춰 개량화된 가구류 <사진3-1>와 모란꽃을 자개 또는 자수방식을 부분 차용한 전통적인 윤곽과 현대적인 느낌을 담아낸 가구들<사진3-3>을 디지털 제품들과 혼용해서 배치함으로써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황실의 전통적인 화려함과 극중 기품있고 온화한 황태후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공간에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위에 열거한 세 개의 공간은 전통적인 주거공간의 구조 속에 자연스럽게 한국적인 정서가 표현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 동궁의 젊은 세자와 세자비의 공간은 로맨틱한 감성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기위해 컨템퍼러리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는 서구화된 공간으로 설정되었고 한국적인 시각적 요소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예로 황태자전<사진4>의 경우 부분적으로 책가도<사진4-1>의 이미지를 디지털적인 느낌이 가미된 구성물과 가구형태로 입체화하고 공간을 이끌어가는 한국적인 정서의 축으로 구조화되었습니다.



<사진4> 황태자전



<사진4-1> 책가도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한 특징적인 공간들은 앞서 얘기했듯이 드라마가 전제하는 퓨전 사극이라는 모호한 시대적 설정이 시공간을 넘나들며 여러 과거의 빛바랜 이미지들에 충실하고, 이에 합당한 색과 양감을 진지하게 부여하는 과정들을 통해 인식의 뒤편에 있던 한국적인 코드들이 현재시점의 가상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이고 타당성 있는 시각적 결과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도들은 본 드라마에서 뿐만 아니라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에서 '한류'라는 문화적 부흥기 속에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상품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내외적으로 공간문화와 더불어 충분히 영향력을 가진 한국적 정체성의 긍정적인 검토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송미술, 영상미술이 상업적인 측면이 강하고, 단순히 키치(kitsch)하고 통속적인 공간을 재현한다는 기존의 인식을 거듭나기 위해 합리적인 제작방식과 신중하고 디테일한 과정들을 밟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화 속에 문화적인 트렌드를 제시하고 산업화에 공조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본 지면을 통해 드라마 '궁'의 시각적 자료들을 열거할 수 있게 된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 학회가 공간문화와 산업경제 발전의 지속적인 원동력으로 자리하시길 기원합니다.